



보도시점 2024. 9. 3.(화) 17:00 배포 2024. 9. 3.(화) 10:00

한국-EU, 테러위협 공동 대응하기로

- 서울서 한-EU 첫 대테러 세미나 개최, 역내 안보 협력 강화 논의
- 테러 위협 대응 위한 정례적 공조 체계 구축 다짐

-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9월 3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럽연합(EU)과 공동으로 '韓-EU 대테러 세미나'를 개최하고, 양측간 대테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
 - 이번 세미나는 국가정보원이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(ESIWA)와 협력하여 성사된 행사로, 대테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 - * ESIWA(Enhancing Security Cooperation In and With Asia) : EU 주도로 EU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프로젝트
 - 우리 정부에서는 대테러센터, 국정원, 국방부, 경찰청, 외교부, 환경부, 소방청, 질병청, 원자력안전위원회,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,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했고, EU에서는 주한 EU 대표부를 포함하여 독일, 스페인, 이탈리아, 크로아티아, 네덜란드 대테러기관 담당관이 참여했다.
 - 참가기관들은 무인기 위협실태와 대응전략, 화생방 위협 상황별 영향평가 및 안전관리 대응대책 등을 공유하고, 무인기와 화생방 위협발생 시 韓-EU간 실질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.
- 주한EU대표부 프레드릭 이그펠트 부대사는 “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유럽이 역내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의 장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”이라며 “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양측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- 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"앞으로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(ESIWA)와 함께 상호 교육, 훈련,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정례화하여 韓-EU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"는 의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부 장	이한형 (02-2100-2032)
	대테러센터	담당자	소방령	나순민 (02-2100-2041)

